

수도권발 코로나 선제대응

익산시, 긴급 비대면 브리핑... 익산역 선별진료소 추가 수도권·대규모 확진자 발생지 방문객 무료 검사 실시

익산시가 수도권발 코로나19 감염 차단을 위한 강도 높고 신속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15일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최근 급증하는 수도권발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해 익산역 선별진료소 추가 설치와 수도권 방문객 무료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지역에는 지난해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지만 대부분 전수조사를 통한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비교적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 14일부터 이틀 동안 발생한 4명의 확진자 중 수도권 접촉자와 최근 강제 집단감염이 발생한 곳에서 각각 1명씩 확진 판정을 받으며 지

역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신속한 차단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이미 지난 14일부터 수도권 방문객에 대한 무료 진단 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15일에는 익산역 광장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방문객 검사를 실시하는 등 선제적 검사를 확대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인근 강제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만큼 검체를 비롯한 집단감염이 발생한 지역의 방문객에 대한 무료 검사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익산지역은 지난 14일 3명, 이날 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며 총 확진자가 125명으로 늘었다. 122번(전북 514번)과 123번(515번)은 자가 격리 중에 확진돼 접촉자는 없다. 124번(516번)은

강동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지난 7일부터 서울을 방문했고 10일 익산에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11일과 12일에는 직장 근무, 자택에 머물렀으며 13일 강동구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 받아 검사를 실시한 결과 14일 양성판정을 받았다. 이날 발생한 125번(전북 582번)은 김제 가나안 요양원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12일 9시부터 13일 9시까지 직장에서 근무한 뒤 자택에 머문 것으로 파악됐다. 요양원 내 확진자 발생으로 진단검사를 받아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정 시장은 '원광대병원과 금마 군부대 집단감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신속한 조치로 확산의 고리를 빠르게 끊어냈다'며 '다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타지역 유입을 막기 위해 신속한 감염원 차단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가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로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면서 전량 매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왕궁 현업축사 전량 매입 '속도'

익산시, 국비 138억원 확보 환경강수질개선 토대 마련

익산시가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로 국비 138억원을 확보하면서 전량 매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사업이 내년까지 완료되면 축산 악취 해결과 환경강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시에 따르면 왕궁 현업축사 약 8만 제곱미터를 매입할 수 있는 예산 138억 원이 내년도 국비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남은 5만여 마리 가운데 2만5천여마리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환경강과 새만금 수질개선 효과를 완전히 거둘 수 있도록 추경에 나머지 사업비를 모두 확보해 내년까지 현업축사 매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당초 전체 현업축사 약 60만 제곱미터 가운데 43만 제곱미터를 올해까지 매입하고 나머지 17만 제

곱미터는 축산업 유지를 희망한다는 농가 의사에 따라 매입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

시는 새만금 수질 문제 해결을 위해 매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을 중앙부처에 요구했으나 나머지 17만 제곱미터의 현업축사는 매입계획에 없었다는 이유로 예산 반영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시는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와 긴밀히 공조해 중앙부처를 상대로 이번 사업이 환경강과 새만금으로 유입되는 축산오염원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고질적인 축산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예산확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지역 정치권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새만금 수질개선 등 물론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잔여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축산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제이앤엘테크, 익산3산단 증설 투자

플라즈마 코팅 전문기업인 (주)제이앤엘테크가 익산제3일반산단에 증설 투자하기로 하면서 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시는 15일 시청에서 전영하 (주)제이앤엘테크 대표, 유희숙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제3일반산단 내 증설 투자를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한 투자협약에 따라 (주)제이앤엘테크는 오는 2023년까지 제3산단 1,650㎡ 부지에 55억원을 투자해 10여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제3산단 8,240㎡ 부지에 고객사 납품물량 증가에 대비하여 신규 투자도 준비 중이어서 고용창출 효과와 산업단지 활성화가 기대된다. 제이

앤엘테크는 1997년 창립 이래 국내외 고체 윤활 코팅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플라즈마 코팅 서비스에서 축적된 기술과 장비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코팅 시스템은 물론 박막 분석장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플라즈마 코팅 전문기업이다.

지난 2016년 제3산단 투자협약 체결 후 현재 총 125억원을 투자하여 20여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증설투자는 그린뉴딜 정부 정책에 따라 증대되는 시장 수요 예측에 기반하여 꾸준한 설비투자 및 연구개발을 통한 수소연료전지 분리판 제조로 수입대체효과를 거둬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의회 예결특위 2021년도 예산안 심사

군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해춘)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8일간 제 23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해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예결특위는 지난달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을 종합심사하는 것으로 2021년도 예산안 규모는 집행부가 요구한 1조 4,128억원 가운데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판단된 30억 8,600만원을 삭감한 1조 3,828억 1,400만원이며,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606억 2,300만원이다.

지해춘 예결위원장은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예산안의 적정성과 실효성 등에 대해 면밀히 살피고 조정하겠다"고 밝혔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지원과 코로나 이후 변화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도 중점적으로 심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군산=한경봉 기자

원광대병원 '김치 나눔'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윤권하)과 원주리후원회는 지난 14일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를 열어 익산시 일원 저소득층 이웃들에게 훈훈한 온정을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이날 김치 나눔 전달식은 원광대병원과 원주리후원회가 참여해 매년 연말 직원들이 직접 김장김치를 담아 소외계층에 나눔활동을 펼쳐왔으나 올해는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인사들이 참여한 김치 나눔 전달식으로 나눔에 동참했다.

올해 사랑의 김치 나눔은 원광대병원이 지난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기부한 교직원 후원금과 원주리후원회 후원금 1,500만원 상당의 김치 3,200kg을 마련하였다.

이날 후원한 사랑의 김치 2,000kg(200세대 분)은 익산시에서 읍 면, 동 저소득층 세대에 전달하고 1,200kg은 사회복지기관 5곳에 전달된다고 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용트림 고백축제'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 선정

내년 첫 선... 관광활성화 탄력

익산 용트림 고백축제(가칭)가 내년도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로 선정돼 농촌지역 관광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15일 시에 따르면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로 '용트림 고백축제'가 공모에 선정돼 내년에 첫 선을 보이게 됐으며 1시군 1대표 작은축제에는 지난해 처음 선정된 두동관백마을의 힐링 숲 축제가 선정돼 계속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공모 선정된 용트림 고백축제는 도비 1천만원을 지원받아 용마리 고을마을운영위원회와 길청소년활동연구소가 협력해 내년 11월 중 용안생태습지공원과 비바람계곡 일원, 익산 교도소세트장 등과 연계해 볼거리, 즐길거리가 있는 시골마을의 대표 관광축제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관광객들의 소망을 담아 연을 날리는 '고백! 하늘에 닿다', 4.8km에 이르는 비바람계곡에 소망을 쓰는 '나만의 용한 고백 담다', 전통과 퓨전이 어우러진 문화예술공연 '힐링비바람' 등이다.

또한 자연 속에서 요가를 하는 '바람 멍~ 구름 멍~', 마을 주민 해설사를 따라 역사, 문화, 생태이야기로 소통하며 걷는 비바람 산책, 개인 또는 커플 자전거 타고 즐기는 비바람 달리기 등을 통해 코로나로 지친 관광객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 '용트림 고백축제(가칭)'가 내년도 전라북도 지역특화형 마을 축제로 선정돼 농촌지역 관광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군산시 '안전신문고' 신고 2년 연속 1만건 이상

군산시가 2년 연속 1만건 이상의 '안전신문고' 신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는 시민들이 직접 일상생활 속 안전위험요소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어플리케이션 또는 포털로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신고대상은 생활안전, 교통안전, 시설안전, 학교안전 등 전 분야가 안전신고의 대상이 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안전신고 건수는 교통안전분야 8,814건, 생활안전분야

3,882건, 시설안전분야 3,472건 등 총 10,688건이 접수됐다.

지난 2018년도에는 2,174건에 불과했던 신고 건수가 2019년도에 약 6배 증가한 1만3,704건을 기록한 것에는 관내 27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안전신문고 앱 설치가 어려운 고령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의 안전신문고 앱 설치 및 신고요령 교육을 실시한 것과 관내 최대 인구 밀집 지역인 수송동 일원의 LED 전광판을 활용하여 홍보하는 등 다채로운 홍보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아동학대 신고번호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